

역사와 환상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번역소설들

상상력과 실험 돋보이는 유럽소설, 역사현장 그린 제3세계 소설 등

곧 시작되는 설 연휴를 풍요롭게 해줄 번역소설이 여러 권 나왔다. 방대한 지식과 독설로 인생과 예술의 의미를 묻는 이지적인 유럽소설, 격변하는 역사 속의 개인을 통해 역사를 일궈가는 인간의 힘을 보여주는 중국과 옛 소련·인도의 소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스르는 형식실험이 돋보이는 프랑스 소설 등이 한꺼번에 소개되었다. 이들 소설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꾀꾀이 읽어치울 수 있는 가벼운 읽을거리가 아니라, 시간과 공을 들여 읽어야 하는 진지하고 무거운 소설들이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가의 작품

모처럼 소설을 펴낸 현암사는 오스트리아의 토마스 베른하르트라는 낯선 작가를 소개했다. 《옛 거장들》과 《비트겐슈타인의 조카》로 독자들에게 다가온 베른하르트의 작품은 한 마디로 서술이 불가능하다. 말은 있되 이야기가 없는, 다시 말하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일컬어지는 구성이 없는 독특한 형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옛 거장들》은 화자인 아츠바허가 관찰하는 음악평론가 레거의 생각과 말이 주내용을 이루는데, 아츠바허가 레거와 과거에 함께 나섰던 대화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꾸며졌다. 《비트겐슈타인의 조카》 역시 회상의 형식을 띤다. 이 작품은 자전적인 이야기로 실제 《논리철학논고》를 쓴 철학자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조카 파울 비트겐슈타인과 작가 자신의 우정을 그리고 있다.

두 작품은 작가가 천착한 인생과 예술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옛 거장들》은 거장들의 '이름'만을 추종하는 속물들에 대한 독설과 비판을 통해 삶과 유리되지 않은 예술이 진정한 예술임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의 조카》의 주인공 파울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배금주의에 물든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경멸하며 외롭게 죽어간다.

베른하르트는 파울과 정신적인 유대감을 느끼고 교류한다.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파울을 보며 베른하르트는 자신은 파울보다 심한 광인인데 그 광기를 통제하여 작가가 되었고, 파울은 광기를 실천해 미치광이가 되었다며 삶의 희비극성과 인간의 불완전성

설 연휴를 앞두고 진지한 주제의 번역소설이 여러권 선보였다. 기발한 상상력과 형식실험이 돋보이는 유럽소설, 역사 속의 개인을 다룬 제3세계의 소설이 독자들을 기다린다.



을 되새긴다.

중국의 격변기 1930년대를 소재로 한 《칠혹같이 어두운 밤도》(마오둔, 한울)와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소용이 상존하는 인도 케랄라주의 아예메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작은 것들의 신》(아룬다티 로이, 문이당), 온 몸으로 운명의 부당함과 맞선 인도의 전설적인 여산적 폴란 데비의 생애를 담은 《또 하나의 삶》(이렌 프랭, 열린책들), 저자 스스로 “역사와 얼굴을 맞대고 썼다”고 고백한 《죽을 때까지 죽지 않으리》(에프게니 예프루센코, 영림카디널)는 역사와 사회 속에 선 개인을 그린 작품들이다.

역사 앞에 선 인간들

중국 사회주의혁명 과정에서 장계석 군대와 ‘반장연합군’의 남북대전을 시대배경으로 한 《칠혹같이 어두운 밤도》는 외국조계지로 근대화 물결이 가장 거세게 불었던 1930년 상하이의 모습을 세밀하게 그렸다. 제국주의 세력과 금융매판자본계급을 대표하는 자오 보타오(趙伯翰)와 민족자본계급을 대표하는 우 쑤펑(吳蓀甫)의 대결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우 나리와 쩡 창하이 등으로 상징되는 봉건계급의 몰락양상, 판보원, 리 위팅 등 빨치산조직의 기회주의적이고 향락적인 양태, 노동운동 및 노동자들의 다양한 측면이 생동감있게 그려졌다.

사회적인 주제에 관심을 둔 앞의 작품과는 달리 《작은 것들의 신》과 《또 하나의 삶》은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 《작은 것들의 신》은 1969년 공산주의와 낙살라이트(인도의

극좌정당) 당원들의 소용이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두 주일 동안 한 가족이 겪는 일을 다루었다. 사회적 관습을 무시하고 뱅골 출신의 힌두교도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아무’가 카스트제도의 동요 속에서 불가촉천민 ‘파라반 벨루타’를 사랑하게 돼 그 갈등이 증폭된다. 작가는 개인의 감정까지 통제하는 편협한 신앙과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했는데, 시나리오 작가답게 영화적 기법을 동원해 흥미를 더하고 있다.

여자가기 때문에, 하층 계급이기 때문에 압박과 굴종을 강요당했던 한 여인이 인도 전역을 떠돌며 살아가는 과정으로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그린 《또 하나의 삶》은 실화를 바탕으로 계급제도의 모순과 성차별의 참혹함을 보여주었다. 자신을 유린한 사회와 남성들을 산적이 되어서만 처벌할 수 있었던 ‘폴란 데비’는 역설적이게도 ‘꽃의 여신’이라는 뜻의 이름이었다.

평생동안 직설적인 정치행동주의자로 살면서 시대와 불화한 러시아 작가가 펴낸 《죽을 때까지 죽지 않으리》는 삶을 치열하게 산 저자의 자서전적, 스탈린주의와 맞서 싸우고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소비에트 인민위원을 지낸 그는 이 작품에서 1991년 고르바초프를 역사에서 몰아냈던 쿠데타의 긴박했던 상황을 배경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그는 토마스 칼라일의 “혁명은 이상주의자들이 구상하고, 미치광이들이 실현하고, 악당들이 이용한다”는 말을 인용해 혁명을 이용하려는 악당들의 역사를 경계하고 있다.

엘친의 변신을 예로 들면서 저자는 역사 앞에 깨어 있으라고 외친다.

기발한 상상력과 형식실험의 프랑스 소설

형식실험과 개인으로의 침잠이 두드러진 프랑스 소설은 《도라 블루더》, 《시간의 지배자》(이상 문학동네), 《일년》(현대문학)이 한꺼번에 나와 프랑스 소설에 대한 최근의 열광을 재삼 확인케 한다.

시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파트릭 모디아노는 희미한 시간의 흔적을 쫓는 동안 자신의 삶을 통찰하게 되는 기묘한 시간여행 《도라 블루더》를 선보였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신문을 보던 주인공은 ‘도라 블루더’라는 여자의 실종 기사를 보고 그 애를 찾아나선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실종된 소녀를 찾는 여정은 유대인인 주인공 자신의 정체성을 탐문하는 과정과 겹치고, 전쟁의 폭력 속에서 불안한 청춘의 나날을 견뎠을 도라의 과거와 교차한다.

각각 《일년》과 《시간의 지배자》를 펴낸 장 에슈노즈와 크리스토프 바타이유는 프랑스 문학의 내일을 짚어준 젊은 작가들이다. 인물의 심리를 물질적 차원으로 표현한 《일년》은 안정된 일상을 박차고 나온 여인이 2월부터 11월까지 프랑스를 여행하며 가난과 도둑질, 히치하이킹, 노숙 등을 체험하는 이야기. “자포자기 스타일의 거실”, “수다스럽지 않은 부엌” 등 개인의 심리상태를 물질화한 표현이 눈길을 끈다.

《시간의 지배자》는 시계가 서버린 환상의 공국을 배경으로 했는데, 일상의 진부함을 뒤엎는 몽상의 세계로 독자들을 불러들인다. 시간이 멈춰버려 권태로운 일상만이 반복되는 도시를 찾은 시계공 아르투로와 도시의 지배자 공작, 시계공과 결혼한 영국 여인 헬렌 등이 엮여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시간의 틈 사이로 솟은 환상의 나라는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현 세계를 퍼즐처럼 뒤섞어 놓은 또 하나의 현실이다.

설 연휴에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고, 인간의 역사와 운명의 드라마가 있는 번역소설에 꼭 빠져보는 것도 모처럼의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는 방법일 듯하다.

— 이현주 기자